

말하는 것들

: 안솔지 《담길 수 없어 뿔어져 나오는》 리뷰

오정은(미술비평)

뭐라고 말할까 생각했다. 아니, 말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몸의 가역반응. 그것은 전시를 보는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예상을 걸들지 않는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돌발적이고 불가해한 것들이 내는 긴장되고 수축된 감각이 뒤섞여 무릎에 걸리고 발끝에 전해진다. 전시장 중앙에 놓인 설치 구조물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걷고, 바닥에 깔린 조명 장비를 피해 멈칫하고 주변을 살필 때에도 몸은 생각의 속도를 뛰어넘어 자세와 동작을 조절해가며 환경에 반응하고 있었다.

전시실은 주기적으로 내용물이 바뀌는 껍데기 신체다. 작품은 피, 장기, 세포, 점액, 그런 것들의 총체. 작품 교체 주기를 맞은 전시실은 흰 페인트를 덧바르고 벽에 난 구멍을 보수하며 자기 육신을 정갈하게 소독한다. '화이트큐브', 미술에서는 몸의 외피를 그렇게 부른다. 순수하며 중성적인 기관이라야 그 안에 작품을 투석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랜 믿음이었어서다.

안솔지 개인전 《담길 수 없어 뿔어져 나오는》(2021.1.8.-2.7)이 전시된 통의동 보안여관 신관 지하 1층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이 곳 중앙에는 노란 철골 기둥과 투명 PVC 천막, 실리콘 호스, 나무 봉 같은 다종다형의 재료가 서로를 지지하며 연결돼 속이 뚫린 입방형 구조물로 설치되어있다. 병원 입원실, 혹은 실험실처럼 연출된 독특한 공간 내부로 들어서기 전에 나는 먼저 주변을 빙 둘러 걸으며 그것을 탐색했다. 이 혼합 작업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바닥에 있던 흰 조명등이 꺼진다. 정전인가 싶었는데 뒤이어 들어온 관람객의 동작을 인지한 바닥 센서의 반응으로 이윽고 다시, 불이 들어온다. 작품의 일부로 놓인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이 와중에 끊김 없이 재생 중이다.

음원의 전파 신호가 있을 곳으로 향한다. 들어갈 만한 입구는 어디인가 잠시 찾고, 작품에 몸이 닿지 않도록 고개를 살짝 숙이거나 바닥 요철을 살펴야 했다. 연결된 와이어 줄을 못보고 투명막 사이로 넘어가려던 관람객 하나가 넘어질 뻔하고 당황하는 몸 기척을 내기도 했다. 공연한 움직임일지 모르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더 움츠려 작품을 통과한다. 안쪽의 작업은 크게 세 개의 설치물로 나뉘어져 있다. 작가는 <기르던 것들>, <보이던 것들>, <내뺐은 것들>로 그들 각각의 이름을 붙였다. 그 중 <보이던 것들>의 일부로 제시된 『다형적 상처』의 인쇄본이 보인다.

만약 Z를 묘사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나 역시 '보이는 그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눈동자 색이라든지, 키는 얼마 만큼인지, 인상이 어떻다든지 등의 보편적 단어를 골라서 묘사해야 그녀를 쉽게 볼 수 있을테니 말이다. 특히 아직 그녀를 만난 적이 없고 나의 언어가 그녀를 조우하는 첫 경험이라면 더 더욱 베스트 버전의 Z를 그릴 수 있게 단어들을 고르고 골라야 한다. (...) 막판에 내가 시킨 튀김 덕분에 머리에서 기름내가 완전히 베였다고 웃으면서 앉는 Z는 아주 생경했다. 온리 원 버전이었던 그녀의 모습이 순식간에 지루개로 싹싹 지워지면서 새롭게 조각되는 듯 했다. 하나에서 둘로 세포분열하듯, 복제품이 생겼는데 마치 내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찬 물질인 사람인 듯 했다.

런던의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 동양인 여성 Z에 대해 1인칭 화자 시점으로 쓴 글 『다형적 상처』는 안솔지 작가가 아트북 출판을 염두하며 진행 중인 별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나는 나중에 작가를 만나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다가 Z가 그녀 자신의 페르소나라는 데 거의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가상의 화자를 만들어 거리를 두고 관찰하게 했을까. 반면, 코피 공포증이 있다는 Z의 일화가 서술된 챕터에서는 관찰자 주어는 점차 실종되고 병중의 고통을 호소하는 Z의 통각과 환영이 꽤 적나라하게 쓰인 문단이 등장한다. 왜? 설명하기보다는 관조적이며, 그래서 난해하고, 관람자가 자기 동선을 의식하게 해 불편하게 만들어진 작가의 작업을 본다. 모발과 혈흔, 침과 땀을 시험관에 배양해놓고 회화적 드로잉을 디지털 프린트로 출력해 무슨 바이오 실험이라도 하는 양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양가적이고, 어딘가 기만을 피하는 듯한 작품 분위기가 작가가 긴 시간 심고하며 적었을 책의 군데 군데에도 녹아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이던 것들>의 또 다른 일부인 혈흔과 질염에 대한 드로잉을 비롯해서 <기르던 것들>의 이끼 까지, 그들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어쩐지 배신감이 들었다. 지금까지 이어진 나의 모든 시도와 추정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평범하다고 생각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어떤 공간에, 만나고 스쳐지나갔던 불특정 다수의 어디로부터 전염된 바이러스가 인체 내부로 들어와 거기 존재하고 있는 생명력, 그 힘을 숙주삼아 감염과 변이를 일으켰던 과정의 세심하고 처절한 묘사가 이들 복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었나? 지독한 고열에 시달리며 살갓이 바늘에 찔리고 단검에 쏘리는 것 같은 고통을 체험했던 작가는, 아니 Z는, 허구에 기댄 상징이고 재현이라는 새삼스런 깨달음에 미치자 나는 그 어떤 투사도 이입도 더 하기가 어려웠다. 인공물과 자연물이 교차된 모종의 액체가 실험장비, 아니 그를 본뜬 설치작품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것 같았고, 그 중심원에 관람자로 초대된 나는 얼떨떨하게 다음을 살필 뿐이었다. 서사도 없이 반복되어 재생되는 녹음된 클래식 음악소리만 얼마간 가만히 들었다.

‘심장박동이다.’

커피와 차 음료에 손톱과 머리카락 같은 탈락된 신체 조직을 섞어 누런 수액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링거 호스를 타고 바닥 비커에 똑똑 떨어지게 한 <내뺐은 것들>을 쳐다보다가 문득, 시종 공간에 울리는 음악소리가 마치 심장박동 같다고 느꼈다. 나중에 들은 작가의 말마따나 동시대가 ‘오로지 몸의 힘으로만 생산해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온 세상이 몸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스템과 물성들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기’라는 데 동의하고 난다면 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면 관람자는 《담길 수 없어 뿔어져 나오는》을 검토하기 위해 전시실의 시스템과 물성을 온 몸으로 들쭉이는 외부 항원 균이다. 변환된 생명신호로서의 BGM은 이 연극적 행위의 극적 몰입감을 고조시킨다. 비유를 이어가자면, 전시를 볼 때 가해지는 비평의 강박은 작업의 강약을 파악하고 해석의 물꼬를 찾아 매체에 특별히 반복적이거나 강조된 부분을 짚어 그를 숙주로 삼고 평가하기 마련이다. 이 활동이 보이는 것과 보는 사람 간에 상보적으로 잘 된다면 작품에 항체가 생기고, 아니면 외부 균의 감염을 못 이기고 작품이 결국 죽는다. 나는 안솔지 작가가 이 긴장 상태를 유예하고 감상자의 손쉬운 판별을 반려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들었다. 좀 전의 배신감은 내가 기대한 미술의 상식과 자연물에 관한 윤리적 관습에서 빗겨나간 심심찮은 충격파였을지도 모르겠다.

정의할 수 없는 식별 불가능이랄까. 형용사로만 이루어진 이 번 전시 제목이 취하고 있는 태도의 결도 그랬다. '담길 수 없어 뿔어져 나오는', 부정의 상황과 강한 동적 순간을 담고 있지만 정작 행위의 주체가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도, 감정적이고 격정적이지도 않은, 아니 둘 다 맞으면서도 틀린 상황이 유도하는 반응에 나는 외부 관찰자로서 몸을 내맡길 따름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몸의 반응이 이윽고 공간에 함몰되어 비로소 작품의 일부로 전이되었음을 느낀다. 걷고 움직이자, 꺼졌던 작품의 불빛도 다시 들어온다. 주격을 잃고 서로를 교환하고 감염되기 시작했다. 신체반응에 의해 수행하는 공간, 혹은 공간에 의해 반응하는 신체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와해시킨다. 그리고 작품에 매복된 디지털 회화의 흔적은 혈관의 선이나 그에서 흘러나온 피의 물성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교환하고 매개하고 있다. 그조차 인공적이고 평면적이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겨우 회복할 수 있었다며 웃던 Z는 피곤해 보이기도, 즐거워 보이기도 했다. 고향에서 고스란히 가져온 흥분이 그녀의 한 해를 잘 보듬어주기를 바랐건만, 갑작스럽게 특이한 증상이 나타났다. (...) 피부병의 정확한 병명은 장미색 비강진*이었다.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와 면역 체계 붕괴로 인한 병이라고 짚막한 설명을 듣고 나왔으니, 기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보통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는 말도 놀라웠으며, 원인을 알 수 없으니 특정 치료법 또한 없다는 소견에 더 할 말을 잃었다는 Z의 말과 표정과 몸짓은 그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어느 날 등과 배에 낫선 피부병이 발현된 Z는 번져나가는 붉은 반점과 몸이 꼬일 듯한 극심한 가려움으로 괴로워한다. 일주일 짧은 휴가를 받아 고향에 들러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휴식 없이 바로 일에 복귀한 뒤였다. 체력 저하와 스트레스, 아마 그것 말고는 달리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작가는 Z의 바쁜 일상에 대한 묘사를 병변에 앞선 서두에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작가는 자신이 어릴 시절 이민과 유학, 그리고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원인불명의 아픔에 시달렸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수차례 병원 검진과 투약 후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의학적 모방이 갖든 그녀의 작업이 적어도 그녀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는 매우 인과적인 결과이며, 작업에 가미된 그 외형적 재현과 태도만큼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묘사도 없겠다는 깨달음이 들었다.

전작 <Naked>(2019)에서 작가는 항히스타민제와 복용법, 오소물 비타민과 복용법, 감기에방티백과 복용법, 가짜 주사기와 약 상자 등을 가변설치하고 바흐의 아리아 선율에 맞춰 퍼포먼스를 행했다. 촛불이 켜진 작품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무표정이다 못해 초연한 얼굴로 목과 배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명상적인 작가의 퍼포먼스의 영상을 찾아서 본 뒤, 나는 안솔지 작가에 대한 생각의 분화와 동화를 더해갔다. 이제 나는 그녀의 행위에 관한 기원이 지금껏 우리가 기르던 것들과 보이던 것들, 그리고 내뿜은 것들을 포함한 살아있음의 반응이 낸 필사적 수신호에 유사하지 않던가를 말하려 한다. 그것은 회화에, 오브제에, 설치 구조물과, 동작 감지 센서에 이식되어 간 것 같았고, 나는 그들 각각이 갖고 있는 면역항체를 뚫고 일체되어 반응해야 했다. 작품에 참여하는 관객-작품을 움직이게 한다거나 퍼포먼스의 일부가 된다거나-, 관람의 프로토콜 같은 그것은 이제 너무나 피동적인 말로 들린다.

* 처음에 한 개의 타원형 반점이 먼저 생기고 그 후 특징적인 전신 발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원인 불명의 급성 홍반성 피부 질환

《담길 수 없어 뿔어져 나오는》이 열리던 날, 바깥은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수칙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시장에 들어오기 전 출입시간과 신원을 비치된 표에 기록하고, 알코올로 양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입장해야 한다. 작품에 상황이 이렇게 맞물린 것은 우연일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안솔지가 창안한 공간의 연극성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독한 것은 나의 손이 아닐지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음의 문장에 가깝다. 여기 있는 불안과 염원, 다형적 상처가 그들 동사의 주어를 찾고 있다. 아니, 타인의 관찰과 침투를 통해 그 것이 말하여질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외피를 탐색하고 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와, 차오른 이들을 나눠 갖자. 홀로 삼키고 머금어야 하는 통증처럼 길고 길게 간직하고 있다가 더는 고름으로 담을 수 없어 살갓을 찢고 뿔어져 나오는 것 같아, 나는 이 말을 너에게 간곡하고도 섭섭하게 하고 있다.●